



포커스

북핵문제와 이란의 교훈

김 현 옥 (국립외교원 교수)



▶ 통일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포커스

- ① 북핵문제와 이란의 교훈
- ②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배경과 의미



통일 돋보기

북한도 선거를 할까?
남북한 선거와 행정구역



Today 남북
속도전, 경제난 극복을 위한
'노력경쟁 운동'

▶ 이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



통일을 여는 사람들

"탈북민의 문화적 차이 극복을 위한
배려가 중요해요!"



통일 Talk

미디어 전문가가 되어
북한의 변화 이끌래요!



좌충우돌 남한 적응기

까치는 까치끼리,
제비는 제비끼리

▶ 통일로 통하는 즐거움!



느낌 있는 여행

봄을 위한 여행안내서
경남 진해



통일 웹툰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반찬은
칼파스!



통일 레시피

'졸깃담백'한 황해도 특산물,
까나리 볶음

웹진앱을 설치해보세요!
웹진 이용 GUIDE



지난호보기



웹진 다운로드



구독신청



구독해지



웹진개선의견

<p>통일 플러스</p> <p>포커스 ① 포커스 ② 통일 돋보기</p>	<p>통일 스토리</p> <p>통일을 여는 사람들 통일 Talk</p>	<p>남북공감</p> <p>Today 남북 좌충우돌 남한 적응기</p>	<p>민주평통365</p> <p>평화통일대토론회 NUAC 뉴스</p>	<p>즐거움 통일</p> <p>느낌 있는 여행 통일 웹툰 통일 레시피</p>	<p>심포, 느낌표</p> <p>이벤트 ① 이벤트 ② 이벤트 당첨자 발표</p>
--	--	--	---	---	---



북핵문제와 이란의 교훈

김 현 옥 (국립외교원 교수)

2015년 7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및 독일을 포함한 주요 6개국과 이란 간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이 최종 타결되었다. 이로써 13년간 비핵산 논의의 핵심이었던 이란 핵문제를 위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란 핵합의가 이루어지게 된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로, 이란은 국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정부를 구성하는 정치체계를 소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2012년 미 행정부의 국방수권법 발효로 인해 이란의 원유수출제한 조치가 확대되었고, 대이란 금융거래가 전면 중단되면서 이란 내부의 경제난이 극심해졌다. 이는 한물급등과 물자부족으로 이어져 중산층의 고통과 개방요구의 결과를 낳았다. 즉, 이와 같은 중산층의 개방요구는 2013년 대선에 반영되었으며, 중도적 성향을 지닌 하산 로하니 대통령의 당선으로 이어졌다.

이란 핵합의의 두 번째 원인은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연관이 된다. 제스민 혁명 이후 중동지역의 정치불안과 함께 나타난 시리아 내전 및 이라크 종파갈등은 급진 수니파 무장단체인 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ISIL)와 알카에다의 발호를 허용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비책은 매우 미미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미국의 국력이 이 지역에 지상군을 보낼 수 있는 정도로 충분하지도 않고, 이라크, 아프간 전쟁에 대한 피로감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지상군파병은 매우 부담스러운 결정이었다. 따라서 시아파 최대국가로서 이라크와 시리아 및 레바논 헤즈볼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란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인해 이란 핵협상과 북핵문제를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즉, 경제제재로 이란과의 비핵화 합의를 이끌어낸 교훈을 북한에 적용하자는 것이다.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인해 이란 핵협상과 북핵문제를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즉, 경제제재로 이란과의 비핵화 합의를 이끌어낸 교훈을 북한에 적용하자는 것이다. 먼저 이란과 북한의 차이점을 보자. 이란과 달리 북한은 선거가 부재한 국가이다. 경제제재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증가하더라도 이것이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로 이어진 이란과는 다른 상황이다. 즉, 주민들의 고통은 북한 정권의 고통과 따로 진행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미국에게 있어 지역적 전략차원에서 이란과 같은 중요성을 가지지 않는다. 북한의 규모나 능력은 미국의 아시아전략에서 이란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산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란 사례를 북한에 가감없이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다.

북한비핵화를 위한 정책적 차원에서 제재는 매우 소중한 선택사안 중 하나이다. 대북정책에는 크게 4가지 정도의 선택이 있다. 첫 번째는 그냥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는 북한핵시설 타격이다. 세 번째는 제재와 압박이다. 마지막은 협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비핵화를 위한 정책적 차원에서 제재는 매우 소중한 선택사안 중 하나이다. 대북정책에는 크게 4가지 정도의 선택이 있다. 첫 번째는 그냥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다. 북한 정권이 시간이 지나면 결국 붕괴할 것이라는 기대하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대감은 북한 정권의 생존과 핵개발의 진화로 인해 깨져버리고 있다.

두 번째는 북한 핵시설 타격이다. 이미 클린턴 정부 때 제기되었던 것인데,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매우 달라졌다. 현재 북한 핵시설은 한 두 군데에 집중되어 있지 않으며, 설령 핵시설을 타격한다 하더라도 이는 북한의 보복과 함께 한반도의 전면전 가능성을 의미한다. 세 번째는 제재와 압박이다. 이는 결국 이란 사례에서 보듯이 북한을 진정한 비핵화 대화로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그러나 이 역시 북한 내부의 정치체제와 중국의 비협조로 인해 그다지 성공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은 협상이다. 과거 국제사회는 북한과 다양한 협상과 대화를 시도해왔으며, 이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제재로 북한을 대화의 틀로 유도하더라도, 대화와 협상이 북한을 비핵화하는데 성공적일 거라는 보장은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국 제재가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수밖에 없다. 이란식 제재가 북한에 통하지 않더라도 북한 주민들이 제재로 인해 아파하고 북한 정권에 대한 불만이 고조된다면 제재의 효용은 존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북정보 유입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올바른 상황인식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국 제재가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수밖에 없다. 이란식 제재가 북한에 통하지 않더라도 북한 주민들이 제재로 인해 아파하고 북한 정권에 대한 불만이 고조된다면 제재의 효용은 존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북정보 유입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올바른 상황인식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새로운 협상과 대화의 틀을 통해 북한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야 한다. 최근 미국의 부상과 미국의 아시아정책이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외교력을 적극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남북미 3자협의체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북미대화에서 한국의 중재역할을 강화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미국의 지원을 유도할 수 있다.



3월 30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북한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상회담들이 열렸다. 마지막 회의가 될 이번 회의는 핵안보와 핵테러리즘에 대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논의가 기대되는 장이지만, 동시에 북한핵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외교력이 집중될 수 있는 기회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북한문제 해결 및 현 제재국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외교의 중요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 이외에도 다양한 채널을 통한 우리의 북핵문제 및 한반도통일을 위한 노력이 중요한 시기이며, 전 세계 117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주평통 해외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지에서의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이다.

<사진. 청와대 / 연합뉴스>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이 창작한 박근혜 대통령 관련 이미지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의 배경과 의미

최수영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지난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단행한 데 이어서, 2월 7일 광명성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것은 한반도 안보환경에 대한 국내외의 민감도를 한층 높였을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 논의까지 제기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기존 정책만으로는 북한 핵과 투발수단 능력의 고도화도, 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북한도발의 '악순환'도 근절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과 더불어 북한 핵, 핵의 투발수단인 장거리 미사일, SLBM의 시험발사 문제는 더 이상 '북한 핵문제'로 제한시키기에는 한계점에 이르렀고 '북한 문제'로 풀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증대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은 2013년 북한에 의해 6개월가량 폐쇄된 적이 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함으로써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이렇게 정부가 개성공단을 중단하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북한의 핵능력이 이번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고도화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수소폭탄 개발과 1만km 이상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성공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핵 위협이 가시화되는 문제상황에서 정부는 북한의 극단적인 도발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북한 핵해결과 화해협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해 왔다. 박근혜정부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남북 쌍방이 신뢰를 쌓아나가 북한 핵문제 해결에서 진전을 이루고 교류협력을 확대코자 했다. 이런 기조에 따라 정부는 북한의 각종 미사일 발사 및 목함지뢰 폭발사건과 같은 거듭된 도발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만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그러나 최근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이제는 기존의 대응방식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의지를 꺾을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했다. 북한은 향후에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배경에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한 정부의 북핵문제에 대한 인식 변화가 담겨 있다. 북핵문제는 국제적 문제이지만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설 때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입장의 변화이다. 또한 북한 핵이 고도화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 해결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인식도 작용했다. 무엇보다도 협상만으로는 북한의 행태를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강한 제재를 통해 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판단을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배경에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한 정부의 북핵문제에 대한 인식 변화가 담겨 있다. 북핵문제는 국제적 문제이지만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설 때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입장의 변화이다. 또한 북한 핵이 고도화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 해결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인식도 작용했다. 무엇보다도 협상만으로는 북한의 행태를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강한 제재를 통해 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판단을 반영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를 이끌어내기 위해 남북관계의 '마지막 카드'인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는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되는 현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상황은 안 된다고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5억6천만 달러의 현금이 유입되었고, 2015년에만 1억2천만 달러가 들어갔다. 결국 이들 현금은 북한경제 개발과 같은 평화적 목적을 위해 쓰인 것이 아니라, 핵과 장거리 미사일 고도화에 악용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편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대북 압박 수단으로 개성공단을 중단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시각도 있다. 사실 개성공단 중단 그 자체만 가지고 경제적으로 대북 압박효과를 크게 기대하기는 무리다. 북한은 무역의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중국을 통해 외화수입의 대부분을 벌어들이고 있다. 2015년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2013년과 2014년에 비해 상당히 큰 폭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5억 달러 수준에 육박했다. 이런 상황에 비춰본다면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유입되는 현금은 북한 전체 외화 수입 중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개성공단 중단의 대북제재 효과는 미미하고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이 과거와 같은 패턴으로 반복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성립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수차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보여준 치명적인 결함은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중국의 동참이 미온적이고 소극적이었다는 점이다. 중국이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유엔의 대북제재는 사실상 종이호랑이에 불과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을 결정하면서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바뀔 것으로 기대했을 것이다. 우리가 개성공단을 중단하면서까지 주도적으로 대북제재에 나서는 상황에서 중국도 과거처럼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개성공단 포기 결단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를 촉구하고 중국을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하는데 중대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 결의안 2270호를 이사국 만장일치로 3월 2일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70년 유엔 역사상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결의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북한의 주된 외화 수입원인 광물자원의 수출 금지 및 제한을 포함하고 있어 북한 핵 개발 및 김정은의 통치자금 차단에도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개성공단 포기 결단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를 촉구하고 중국을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하는데 중대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 결의안 2270호를 이사국 만장일치로 3월 2일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70년 유엔 역사상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결의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북한의 주된 외화 수입원인 광물자원의 수출 금지 및 제한을 포함하고 있어 북한 핵 개발 및 김정은의 통치자금 차단에도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더구나 이 결의안이 미국과 중국의 사전 조율과 합의를 통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제재 동참을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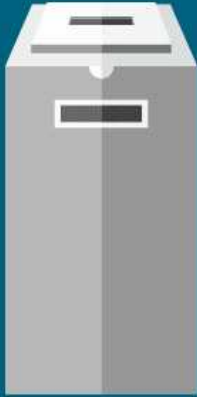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우리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개성공단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불가피한 결정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북한이 변화를 선택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루바삐 인식하도록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한층 공고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대북제재 국면에서 우리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을 한목소리로 지지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해 중국의 대북제재 의지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갈공명이 울음을 삼키면서 아끼던 부하 장수를 처형했다는 읍참마속(泣斬馬謖)을 떠올려 본다.

개성공단 관련 정부 입장

<사진: 청와대 / 연합뉴스>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이 창작한 박근혜 대통령 관련 이미지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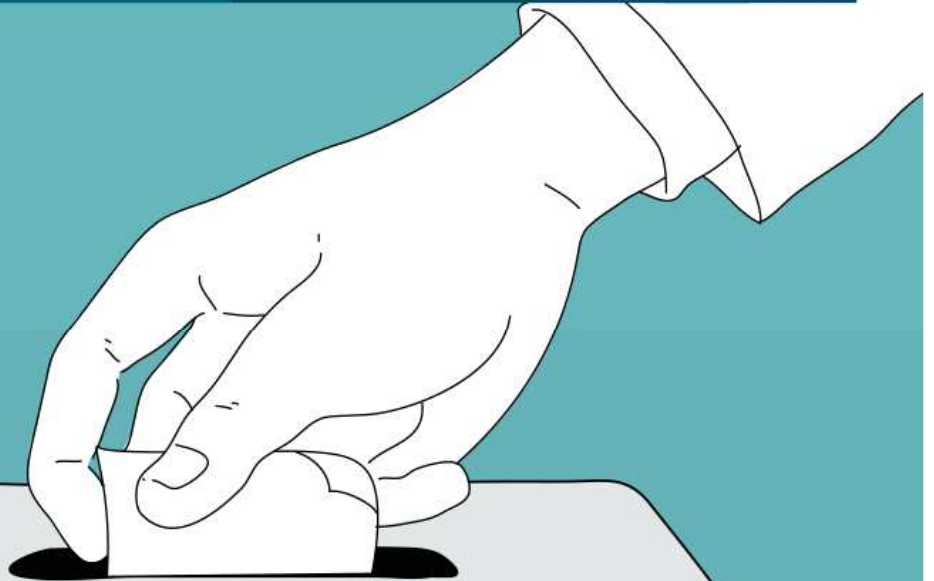


북한도 선거를 할까? 남북한 선거와 행정구역



얼마 안 있으면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다.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만큼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요즘이다. 그런데 북한에도 선거가 있을까? 물론 있다. 가장 최근 선거로는 지난 2014년 3월 치러진 제13차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가 있으며, 당시 투표율 99.97%, 찬성률 100%를 기록한 바 있다.

남한과 북한의 국민대표 선출방식



남한	선거명	북한
국회의원 선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
만 19세 이상 투표 (25세 이상 출마)	선거나이	만 17세 이상 투표
각 지역구에서 각 당의 단일후보자끼리	후보선정	노동당에서 선거구별 단일후보 선정
선거 18일 전 후보등록 마감 (선거운동 기간 13일)	공고일 (선거운동)	선거 3일 전 후보등록 마감 (선거운동 기간 3일)
4년제	임기	5년제
지역구 253석 + 비례 47석 = 300석 (20대 선거 기준)	선거구	687명(13차 대의원 선거 기준)

국회의원 및 정당 1인 2표제
(기표소 안에서 후보 선택)

54.2% (12.4)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선거방식

1인 1표제
(반대할 경우만 기표소에서 줄긋기)

투표율

99.97% 참가, 100% 찬성 (14.3)

지참물

공민증

※ 참고자료 : 북한 헌법, 조선중앙TV
도움말 주신 분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동식 박사

남북한의 행정구역

남한

북한

1특별시, 6개 광역시, 8개 도,
1개의 특별자치시,
1개의 특별자치도

- 서울특별시
- 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울산광역시
- 경기/강원/충청북/충청남/경상북/경상남
전라남/전라북도
-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1직할시, 2특별시, 9개 도

- 평양직할시
- 라선특별시, 남포특별시
- 평안남/평안북/자강/량강/황해남
황해북/함경남/함경북/강원

남북한 총선거를 위한 전략? 북한의 행정구역 변화

1945년

현재





북한은 량강도와 자강도 등 2개의 도를 신설했는데, 이는 지역자립 체제의 확립 혹은 국방의 용이함 때문이라는 설도 있지만, 남북한 총선거를 대비, 남한보다 많은 도를 확보했다는 주장이 있다.

통일스토리 | 통일을 여는 사람들



↑ TOP

TV 사극에서는 강한 리더십과 위엄을 갖춘 '왕 진문 배우'이지만, 방송계에서는 가장적인 이미지로 손꼽히는 최수중 씨. 여기에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국내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는 그가 최근 민주평통의 평화통일 홍보대사를 맡아 국민들에게 통일의 필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TV 인기프로그램 '잘살아보세'에서 북한이탈주민들과 어우러져 생활하는 가운데 시청자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하면서도, 늘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남쪽한 주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배우 최수중 씨를 만났다.

◆◆ 사극 속 '왕' 전문배우, 태조 왕건이 가장 인상적

드라마 출연 경력만 30년, 종전의 히트를 기록하며 시청률의 역사를 다시 쓴 드라마만도 십 수편인 배우 최수중 씨는 특히 신라시대 장보고, 통일신라 김춘추, 발해 대조영, 고려의 태조 왕건에 이어 대통령까지 역사 속 다양한 왕 혹은 리더의 모습을 열연한 바 있다. 이처럼 수많은 인생을 연기하면서 쌓인 관록과 포스가 상당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만나본 최수중 씨는 동네에서 함께 축구공을 차거나 일상적인 농담을 하는 친근한 형, 오빠 같은 느낌이다. 그에게 그런 연기했던 왕들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역할이 누구였는지 물었더니 태조 왕건을 꼽는다.



↑ TOP

"역사적인 인물들은 대부분 그 위치까지 올라가면서 보여준 인격적 모습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누구 하나만을 꼽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가장 항상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는 인물은 태조 왕건이죠. 모든 것을 하나로 결집하고 통일시키는데 대단한 지략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거든요. 누구와도 적을 만들지 않고 포용하며 대화로 풀어나가고, 멀리 있는 사람조차도 내 사람으로 만드는 큰 역량과 지혜를 갖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 TV '잘살아보세'에서 탈북민들의 '오빠'다



'왕'의 타이틀을 내려놓고 요즘 TV에서 만나는 최수중 씨의 모습은 자상하면서도 배려심 깊은 '탈북민들의 오빠'다. '맥가이버'로 통하며 탈북여성과 '천생로동' 커튼을 이뤘던 나무의 자를 만드는 '행복한 통일목공소'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북한음식 가짜미식해를 만들어 탈북민들에게 '고향의 맛'을 선사하기도 했다. 가짜미식해는 환경도 지방의 향토음식으로, 최수중 씨의 부모님이 모두 이북 분이라는 것도 방송에서 공개된 바 있다.

방송에서는 두부발이나 토끼탕, 속도전떡 같은 북한 요리를 함께 만들어 먹고 남북한 주민이 다 아는 노래 '독도는 우리땅'을 합창해보이기도 했지만, 가끔은 너무 다른 생활방식에 놀라움을 느낄 때도 많단다. 남과 북이라는, 다른 생활환경에서 살아온 남녀가 한 곳에서 모여 살며 북극북극한 모습을 보여주는 '잘살아보세' 프로그램은 그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앞으로 우리가 바라는 평화통일이 이뤄진다면 남북한 주민간 어떤 문화적 차이들이 있고, 이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걸 시청자들이 미리 느껴볼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북한에서 온 여성들에게는 남한의 문화를 알려주고, 우리도 북한 주민들의 생활방식을 체험해 보는 거죠."

◆◆ 환경과 교육으로 인한 차이 커, 배려 필요

탈북민들과 함께 하면서 겪은 못지 못 할 에피소드는 없었을까? 최수중 씨는 언어가 달라 생긴 일들이 가장 많다고 한다. "예를 들어 '내말이 경사지니?'와 같은 북한 고유의 사투리를 쓰면 정말 못 알아듣더라고요. '내 말이 마음에 안 드냐'는 뜻인데 제주도 고유의 방언을 섞은 남한 사람들도 못 알아듣는 것과 비슷하죠. 그런 언어의 차이들이 적진 않더라고요."

또한 그 물질 않지만, 가끔 화를 억누르고 참지 못하는 모습을 촬영장에서 볼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자제시키면서 웃음으로 화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말로 격동한다고 하죠. 그런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는 게 느껴져요. 나보다는 남을 생각해주고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여유가 부족한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특히 성취욕이나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욕구가 큰데 아무래도 입고 먹고 쓰는 것이 넉넉하지 않은,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움에 뺀 습관들이 있는 거죠. 어릴 적부터 받아온 교육의 차이도 없지 않는 것 같고요."

↑ TOP



그래서 탈북민들과 함께할 때는 더 많은 대화와 배려가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잘살아보세'를 촬영하면서 한 민족이라는 동질감만 큼이나 문화적 이질감이 많이 느껴지는데, 탈북민들이 남한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동과 말을 이해하지 못할 때마다 대화를 통해 이해시켜주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탈북민 스스로 '내가 순가락을 듣기 전에 먼저 어른이나 동생을 챙겨드리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기까지 남한 사람들의 인내와 배려 또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통일시대엔 위대한 선진강국으로 우뚝 설 것 같아요

남북한 주민 간 느껴지는 문화적 차이는 70년 분단에서 비롯된 것이고, 통일이 된다 해도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겠지만, 그 격차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통일이다. 그래서 끝으로 '평화통일 홍보대사' 최수중 씨가 생각하는 통일비전에 대해 물어봤다.

"우리나라는 누구나 다 아는, 천 세계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잖아요. 전쟁을 겪은 작은 영토 안에서 이만큼 빨리 경제성장을 이룩하신 어르신부터 힘이 되어줄 청년들까지, 그리고 탈북민을 역시 모두가 바라는 게 바로 통일일 텐데, 그 열원이 이뤄진다면 정말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대한 선진강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큰 세계, 더 밝은 미래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해요."



“탈북민의 문화적 차이 극복을 위한 배려가 중요해요!”

민주평통 평화통일 홍보대사 배우 최수종

TV 사극에서는 강한 리더십과 위엄을 갖춘 ‘왕 전문 배우’이지만, 방송계에서는 가정적인 이미지로 손꼽히는 최수종 씨. 여기에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국내외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는 그가 최근 민주평통의 평화통일 홍보대사를 맡아 국민들에게 통일의 필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TV 인기프로그램 ‘잘살아보세’에서 북한이탈주민들과 어우러져 생활하는 가운데 시청자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하면서도, 늘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남북한 주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배우 최수종 씨를 만났다.

❖❖❖ 사극 속 ‘왕’ 전문배우, 태조 왕건이 가장 인상적

드라마 출연 경력만 30년, 종전의 히트를 기록하며 시청률의 역사를 다시 쓴 드라마만도 십 수편인 배우 최수종 씨는 특히 신라시대 장보고, 통일신라 김춘추, 발해 대조영, 고려의 태조 왕건에 이어 대통령까지 역사 속 다양한 왕 혹은 리더의 모습을 열연한 바 있다. 이처럼 수많은 인생을 연기하면서 ‘살인 관록과 포스가 상당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만나본 최수종 씨는 동네에서 함께 축구공을 차거나 일상적인 농담을 하는 친근한 형, 오빠 같은 느낌이다. 그에게 그간 연기했던 왕들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역할이 누구였는지 물었더니 태조 왕건을 꼽는다.

“역사적인 인물들은 대부분 그 위치까지 올라서면서 보여준 인격적 모습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누구 하나만을 꼽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가장 항상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는 인물은 태조 왕건이죠. 모든 것을 하나로 결집하고 통일시키는데 대단한 지략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거든요. 누구와도 적을 만들지 않고 포용하며 대화로 풀어나가고, 멀리 있는 사람조차도 내 사람으로 만드는 큰 역량과 지혜를 갖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 TV ‘잘살아보세’에서 탈북민들의 ‘오빠’되다



‘왕’의 타이틀을 내려놓고 요즘 TV에서 만나는 최수종 씨의 모습은 자상하면서도 배려심 깊은 ‘탈북민들의 오빠’다. ‘맥가이버’로 통하며 탈북여성과 ‘천생로동’ 커플을 이뤄 나무의 자를 만드는 ‘행복한 통일목공소’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북한음식 가자미식해를 만들어 탈북민들에게 ‘고향의 맛’을 선사하기도 했다. 가자미식해는 함경도 지방의 향토음



식으로, 최수중 씨의 부모님이 모두 이북 분이라는 것도 방송에서 공개된 바 있다.

방송에서는 두부밥이나 토끼탕, 속도전떡 같은 북한 요리를 함께 만들어 먹고 남북한 주민이 다 아는 노래 '독도는 우리땅'을 합창해보이기도 했지만, 가끔은 너무 다른 생활방식에 놀라움을 느낄 때도 많았다. 남과 북이라는, 다른 생활환경에서 살아온 남녀가 한 곳에서 모여 살며 북닥북닥한 모습을 보여주는 '잘살아보세' 프로그램은 그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앞으로 우리가 바라는 평화통일이 이뤄진다면 남북한 주민간 어떤 문화적 차이들이 있고, 이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걸 시청자들이 미리 느껴볼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북한에서 온 여성들에게는 남한의 문화를 알려주고, 우리도 북한 주민들의 생활방식을 체험해 보는 거죠."

❖❖❖ 환경과 교육으로 인한 차이 커, 배려 필요

탈북민들과 함께 하면서 겪은 웃지 못 할 에피소드는 없었을까? 최수중 씨는 언어가 달라 생긴 일들이 가장 많다고 한다.

"예를 들어 '내말이 경사지니?'와 같은 북한 고유의 사투리를 쓰면 정말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내 말이 마음에 안 드냐'는 뜻인데 제주도 고유의 방언을 하면 같은 남한 사람들도 못 알아듣는 것과 비슷하죠. 그런 언어의 차이들이 적진 않더라고요."

또한 다 그렇진 않지만, 가끔 화를 억누르고 참지 못하는 모습을 촬영장에서 볼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자제시키면서 웃음으로 화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말로 격동한다고 하죠. 그런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는 게 느껴져요. 나보다는 남을 생각해주고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여유가 부족한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특히 성취욕구나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욕구가 큰데 아무래도 입고 먹고 쓰는 것이 넉넉하지 않은,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에 밴 습관들이 있는 거죠. 어릴 적부터 받아온 교육의 차이도 없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탈북민들과 함께할 때는 더 많은 대화와 배려가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잘살아보세'를 촬영하면서 한 민족이라는 동질감만 큼이나 문화적 이질감도 많이 느꼈는데, 탈북민들이 남한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동과 말을 이해하지 못할 때마다 대화를 통해 이해시켜주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탈북민 스스로 '내가 손가락을 들기 전에 먼저 어른이나 동생을 챙겨드리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기까지 남한 사람들의 인내와 배려 또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통일시대엔 위대한 선진강국으로 우뚝 설 것 같아요

남북한 주민 간 느껴지는 문화적 차이는 70년 분단에서 비롯된 것이고, 통일이 된다 해도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겠지만, 그 격차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통일이다. 그래서 끝으로 '평화통일 홍보대사' 최수중 씨가 생각하는 통일비전에 대해 들어봤다.

"우리나라는 누구나 다 아는, 전 세계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잖아요. 전쟁을 겪은 작은 영토 안에서 이만큼 빨리 경제성장을 이룩하신 어르신부터 미래에 힘이 되어줄 청년들까지, 그리고 탈북민들 역시 모두가 바라는 게 바로 통일일 텐데, 그 염원이 이뤄진다면 정말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대한 선진강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큰 세계, 더 밝은 미래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해요."



“

모두가 바라는 평화통일이 이뤄진다면
정말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대한 선진강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큰 세계,
더 밝은 미래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해요.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The National Intelligence Commission



<정리.기자회견 / 사진.신영민>



미디어 전문가가 되어 북한의 변화 이끌래요!

고려대학교 신입생
주찬양 주일롱 남매

탈북민 토크 TV 프로그램인 '이제 만나러 갑니다'를 통해 대중에 얼굴을 알린 주찬양 씨. 현재 한국은 물론 미국 등 해외에서도 강연 등을 통해 북한의 실상을 전하고 있다. 그런 주 씨가 북한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세계에 북한을 알리는 '미디어 전문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 늦은 나이에 대학 신입생이 됐다. 특히 남동생 주일롱 씨와 나란히 고려대학교 16학번으로 입학해 화제가 됐다.



주찬양
고려대 미디어학부 16학번

가족의 안전을 위해 가장 늦게까지 혼자 남아 있다가 2010년 탈북한 늦깎이 여대생. 채널A 이만갑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며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현재도 북한의 변화와 통일을 소망하며 활발한 대외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일롱
고려대 정치외교 16학번

초등학교 6학년 때 한국에 온 이후 한영외국어고등학교를 거쳐 고려대학교에 진학한 학구파 탈북대학생. 장래 인권변호사가 되어 탈북민들을 돕고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일하며, 통일 후에는 남북한 주민 간 가교역할을 하고 싶다고.

💡 꽃 필 때 분주한 벌둥지처럼... 신입생 남매의 대학생활

e-행복한통일 : 대학에 입학한 지 한 달여 밖에 안됐는데, 대학생활 어떤가요?

일롱 : 학교 중앙광장 잔디밭에 앉아 친구들과 이야기도 해보고, 새내기배움터나 엠티도 다녀오고 나니 '진짜 대학생'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저기 사랑이 싹트는 친구들도 있고요. 꽃이 필 때 벌둥지를 보면 뭔가 되게 분주하면서도 활기차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수업방식이나 과제 수준도 고등학교와 차이가 있고 영어 토론수업까지 있어서 쉽지 않지만, 제 인생에서 한 번쯤은 무언가에 몰두해봤다고 자부할 정도로 학구열을 불태우고 싶어 마음이 두근거려요(웃음).

찬양 : 방송에 나갔다는 이유만으로 연예인도 아닌데 주목받는 게 싫어 조용히 다니고 있는데, 학과 친구들도 배려를 잘 해줘서 '언니 동생' 사이로 평범하게 지내요. 사실 같은 학교, 같은 학과에 두 번이나 낙방한 데다 동생까지 이 학교에 지원한다고 하기에, 동생만이라도 합격했으면 좋겠다고 바랐는데 저도 다닐 수 있게 돼 겹경사라고 생각해요.



🕒 3시간 자고 공부한 동생, 3수만에 합격한 누나

e-행복한동일 : 탈북민을 위한 입시전형이 있긴 하지만, 공부도 잘 해야 입학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일룡 : 잘 한다기 보다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특히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12시까지 공부를 하고 온 날도 많았고, 하루에 3~4시간 밖에 못 잔 것 같아요. 슬럼프에 빠질 때마다 담임선생님들께서 잘 이끌어주셨고 모르는 문제들은 그때그때 친구들에 물어보곤 했는데, 친구들이 잘 가르쳐줘서 좋았어요. 이제 대학이라는 새로운 곳에 왔고 아직 한참 부족하다는 걸 실감하지만 그래도 그 벽을 넘기 위해 힘차게 도전해보고 싶어요.

찬양 : 북한 중학교 학력을 남한에서 인정받긴 했지만, 무작정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먼저 세상을 좀 더 알고 싶었어요. 외국에 나가보는 게 꿈이었죠. 아르바이트도 하고 후원도 받아서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다녀왔고, 탈북 할 때 거쳐 왔던 제3국들을 가봤어요. 남한여권을 가진 자유인의 신분으로요. 그러다 한국 내 정식 교육기관을 졸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방송을 출연하며 입시 준비를 같이 했어요. 탈북민전형이라도 학업이 우수한 학생들을 먼저 선발하니까 결국 삼수 끝에 입학하게 됐네요(웃음).



🕒 3년 만에 남한에서 가족과 재회, 꿈일까봐 눈 못 떠

e-행복한동일 : 다섯 명의 가족 중 주찬양 씨가 가장 늦게 한국에 왔죠?

찬양 : 예. 아버지는 대북 라디오방송을 들으면서 우리가 속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셨어요. 자식들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교육받길 원했기에, 탈북을 결심하시고 먼저 남한으로 가신 뒤 이어 가족을 탈출시켰죠. 하지만 저는 엄마와 동생들이 의심을 받지 않도록 자진해서 북한에 남았어요. 부모님은 혼자만 제게 돈이나 물품을 몰래 보내오셨고, 3년 넘게 혼자 지내다가 2010년 남한에 올 수 있었어요.



e-행복한동일 : 가족과 재회했을 때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라고...

찬양 : 남한으로 가신 아빠가 라디오에 출연할 때마다 북한에서 아빠 목소리를 듣고 울었던 기억이 나요. '우리가 살아서 만날 수 있을까' 생각했죠. 그러다 남한에서 가족을 만난 날 밤, 3년 만에 엄마가 직접 만든 요리를 한상 가득 차려놓고 온 가족이 모여 축하하는 모습을 남동생이 촬영하는데, 완전히 신세계 같았어요. 하지만 다음날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땐 눈을 뜨지 못하겠더라고요. 꿈일까 봐,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는데 딱딱-엄마가 부엌에서 내시는 도마소리, 아빠가 뉴스를 보면서 우렁우렁하시는 소리, 남동생과 여동생이 함께 속삭속삭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들이 점차 선명해졌을 때 아 이건 꿈이 아니구나, 정말 감사하다, 행복한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룡 : 저는 인상 깊었던 기억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실 고등학교에 입학 때까지도 '북한사람인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혹시 놀리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라며 경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발표시간에 장래 희망과 함께 북한에서 살았던 이야기를 했더니, 친구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하며 다 같이 올려주는 거예요. '아, 선입견은 내가 갖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대학에 와서도 그래요. 자연스럽게 대하려고 노력하면서도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친구들의 마음이 고마워요.

북한실상 알리는 미디어 전문가, 인권변호사가 꿈

e-행복한통일 : 주찬양, 주일룡 두 학생이 남한에서 갖게 된 꿈은 뭔가요?

일룡 : 제가 북한에 있었다면 출신성분 때문에 잘해도 농사, 못해도 농사를 지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남한으로 오신 이유 중 하나가 교육인데, 이제 대학생이 되었으니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한 후 로스쿨에 진학해 인권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찬양 :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미디어를 통해서 외부의 정보를 접하고 인식을 바꾸었듯, 미디어는 매우 커다란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TV 매체에 출연해 이야기를 하거나 국제 행사에서 발언을 하면 그 영향력이 눈에 띄게 늘어난다는 것을 경험하고부터는 '미디어 전문가가 되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방송을 통해 북한의 변화, 북한 사람들의 잠재력과 가능성 등을 계속 전하고 싶어요.



e-행복한통일 : '이만갑' 등 방송활동과 미국 북한인권단체 LiNK에서의 활동경험을 이야기해주세요.

찬양 : 탈북민들이 북한에 대해 잘 알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자기 지역 외엔 몰라요. 그런데 이만갑을 녹화하면서 다른 탈북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많은 걸 배웠어요. 세상 고생은 제가 다 한 것 같았는데 아니란 걸 알았고요. 지난 4년간 탈북민들과 네트워크를 다지고 배웠더니 마치 '북한'이라는 대학을 졸업한 느낌이에요. LiNK 서울지부에선 탈북민 최초로 인턴활동을 했는데, 북한 주민을 무조건 측은하게 보지 않고 잠재력을 지닌 사람, 미래에 희망이 될 사람이라는 자신감과 믿음을 줬어요. 고향 친구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전하고 싶고, 현재 LiNK 회원은 아니지만 계속 협력하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인 북한 청년들의 변화를 응원해주세요

찬양 : 저는 이산의 아픔을 3년 겪었지만 70년 간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만성적인 고통을 겪으신 분들이 많은데도, 우리 세대의 아픔이 아니라고 외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비록 남북관계가 좋진 않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지금 북한 청년들은 아직 표출하지 않았을 뿐, 열려 있고 깨어 있어요. 저도 남한에서보다 북한에서 한국드라마를 더 많이 봤을 정도로 외부 매체와 접촉이 생각보다 많아요. 독일 통일 때도 중요한 게 정보였잖아요. '통일의 불'을 켤 수 있는 스위치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해요.

일룡 : 평양에서부터 시골 농사꾼의 아들까지 북한인구 800명 당 1명이 한국에 왔으니 마을별로 1명 이상 온 거나 다름없어요. 남한 친구들이 저에게 해준 것처럼 다른 탈북민 친구들에게도 선입견 없이 도와준다면 1차로 통일은 된 거라고 생각해요. 통일이 되면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아무래도 남북한 주민 간 가교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리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게요.



속도전, 경제난 극복을 위한 ‘노력경쟁 운동’

김 일 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북한은 속도전을 ‘모든 사업을 전격적으로 밀고 나가는 사회주의 건설의 기본전투형식’이며, ‘최단 기간 내에 양적·질적으로 최상의 성과를 이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속도전의 성공 조건으로 사상혁명, 기술혁명, 조직지도사업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사상혁명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고, 기술혁명을 다그치며, 조직지도사업을 원만히 뒷받침할 때 성공적인 속도전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북한은 속도전을 내부자원 동원 및 인적역량 결집을 극대화하여 경제목표의 조기달성과 초과달성 등을 도모하는 ‘노력경쟁운동’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속도’의 등장과 진화, ‘천리마 속도’에서 ‘마식령 속도’까지

북한에서 ‘속도’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1950년대 ‘천리마 운동’ 시기이다. 북한은 1956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천리마를 탄 기세로 달리자”는 구호를 제시하고 빠른 속도와 높은 질을 담보하는 ‘천리마 운동’과 함께 ‘천리마 속도’를 제시하였다. 이후 ‘속도’를 통한 노력경쟁운동은 1950년대 6.25 전쟁 이후 평양시 복구건설 과정에서 등장한 ‘평양 속도’를 거쳐, 1960년대에는 흥남 비날론 공장의 ‘비날론 속도’와 강선제강소의 ‘강선 속도’로 나타났다.

그리고 1970년대의 김책제철소에서 시작된 ‘충성의 속도’와 ‘70일 전투 속도’를 거쳐, 1980~1990년대에는 ‘80년대 속도’, ‘90년대 속도’로 나타났다. 2000년대에 들어서도 ‘속도’의 강조는 지속되었으며, 김정일 시대 희천발전소의 ‘희천 속도’와 함께 최근 김정은 시대 마식령 스키장의 ‘마식령 속도’와 수산사업소 건설 경험을 토대로 한 ‘조선 속도’에 이르기까지 ‘속도’가 북한의 경제발전을 지배해 왔다.



▲ 북한 자강도 희천발전소

‘속도전’ 용어는 1974년부터 공식적으로 등장

‘천리마 속도’에서 ‘마식령 속도’에 이르기까지 ‘○○ 속도’가 ‘속도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속도’는 어느 한 생산부문에서의 높은 성과를 모범으로 삼아 이를 전 사회에 전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속도전은 이러한 모범사례 전파를 넘어 전 사회의 작동원리로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어느 한 분야만이 아니라 북한 전 사회의 모든 사업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방식을 의미한다.

북한에서 ‘속도전’은 김정일에 의해 처음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1970년 김정일의 지도아래 혁명가극 ‘한 자위단원의 운

명'을 영화로 만드는 과정에서 1년은 죽히 걸릴 작업을 4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성했다면서 이를 속도전의 효시이자 본보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속도전'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은 1974년 2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8차 전원회의이다. 이 회의에서 김일성은 6개년계획(1971~1976년)을 당 창건 30주년(1975. 10. 10)까지 조기완수할 것을 촉구하면서 "당조직들은 대중의 지혜와 창조적 열의를 적극 발양시켜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속도전을 힘 있게 벌여 대진군 운동의 전진속도를 최대한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북한의 속도전은 1974년 공식적으로 등장하였으며, 이후 시작된 '70일 전투'와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다.

최초의 속도전 '70일 전투'에서 김정은 시대 '70일 전투'까지



▲ 북한 70일 전투 선전포스터

북한은 당시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10대 전망목표'를 제시하였으나 성과가 없자, 1974년 10월에 '70일 전투'를 실시했고, 이후 제2차 7개년 계획(1978~1984년)이 시작된 1978년, 그 해의 목표를 앞당겨 달성하자며 '100일 전투'를 전개하였다. 1980년대 북한의 속도전은 제6차 당 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100일 전투'로 나타났다. 그 이후 1988년 2월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위한 건설기간 단축을 위해 '200일 전투'가 시작되었으며, 제1차 200일 전투가 끝난 직후인 1988년 9월 '제2차 200일 전투'가 진행되었다.

1990년대 북한의 속도전은 고난의 행군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1998년 '200일 전투'를 통해 지속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2005년 당 창건 60돌을 준비하기 위한 '100일 전투'에 이어, 2009년 '강성대국건설의 역사적 분수령'을 이르기 위한 '150일 전투', 그리고 연이어 '100일 전투'를 전개하였다. 김정은 시대 들어서도 북한의 속도전은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36년 만에 개최되는 7차 당대회를 앞두고 성과 창출을 위한 '70일 전투'가 전개되고 있다.

속도전의 폐해는 부실공사와 인명피해, 경제불균형 심화

북한에서 '속도전'은 일상화된 용어지만 당국에게는 '경제성과'를 주민들에게는 '고통'을 의미하는 상반된 의미로 사용된다. 북한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속도전을 통해 기적과 같은 놀라운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자재와 장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속도'의 강조는 필연적으로 '부실'과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속도전의 부작용들이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면서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부실공사로는 2014년 5월 붕괴된 평양 23층 고층아파트와 최룡해의 낙마를 가져온 백두산발전소 부실공사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북한판 타워팰리스'라 불리는 미래과학자거리 53층 아파트 역시 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급하게 완성되어 부실공사가 염려되고 있다.

속도전은 또한 주민들의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기술, 장비, 물자의 부족을 노동시장의 연장과 노동강도의 강화로 대체하는 방식이기에, 최근 열악한 작업환경과 무리한 속도전으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인간다리'까지 등장시키며 주민들의 동원을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당국이 자랑하고 있는 '마식령 속도'를 '탄식령 속도'라고 부르면서 속도전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김정은 시대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속도전은 향후 북한 경제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속도전은 생산자원을 특정부문에 집중해 단기적으로 생산량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다. 단기적 성과에 급급하다 보니 건설과 경공업, 그리고 농축산에 자원이 집중되고 있으며, 장기적인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제조업과 인프라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마도 속도전은 북한 경제의 어두운 이면을 가리는 전시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북한 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바이러스로 작용할 것이다.



▲ 북한의, 23층 아파트 붕괴사고

<사진. 연합>



향기 없는 이른 봄꽃들이 지고 본격적으로 해사한 꽃의 향연이 시작되면, 사람들 마음속에 잠들어있던 연애세포가 하나둘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한다. 연인들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평생 솔로일 것 같은 남녀들도 설레는 로맨스를 꿈꾸는 이 봄. 북한에서부터 만나 사랑을 키워 온 남녀커플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키가 크면 '센티 당 부실하고 모자라다'?

2014년 남한으로 왔다는 남녀커플 강호 씨와 정연 씨(가명). 강호 씨는 키가 178cm에 약간 그슬린 얼굴, 다부진 체격을 갖고 있었고, 정연 씨는 작은 얼굴에 흰 피부, 크고 늘씬한 체형을 하고 있었는데, '키가 크다'는 칭찬에 재미있는 말을 들려준다. 북한에서는 '남자 키가 170cm를 넘으면 센티 당 부실하고, 여자 키가 160cm를 넘으면 센티 당 모자라다'고 한다는 것. 키가 지나치게 크면 야무지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북한에서는 성장기에 많이 먹고 부쩍 자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신장이 대부분 작잖아요. 키가 작은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만 멀 대 같이 크면 그 사람이 이상해 보이는 거죠. 군대에서도 제가 남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으니 눈에 확 띄더라고요."

강호 씨는 국경 두만강 인근에서 10년간 장교로 군대생활을 했다. 아직 군인 티가 난다는 말에 "보통 군인들은 3년 석기(민간 생활에 적응하는 것)라 하는데, 장교들은 '중신석기'라고 부른다"고 했다. 군대에 10년을 다녀오더라도 남들은 3년이면 민간생활에 적응하는데 군관들은 평생 그 모습이 따라다닐 정도로 군인티를 벗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관련내용 : 24호 <3년 석기, '니들이 군대를 알아?> 참조)**

정연 씨 역시 외모 콤플렉스를 갖고 있었다. '목이 길고 이마가 볼록하다'는 남한 사람들의 칭찬에 "여기 와서 그런 소릴 또 듣는다"며 한숨을 쉬었다고.

"제가 목이 기니까 북한에선 친구들이 '남의 집 담벼락에서 뭐 먹을 거 없나 내다보는 목'이라고 불렀거든요. 얼굴이 작아 '참새굴'이라 하고, 이마가 볼록하니 '소곰재(잠자리)'라고 놀려 댔어요. 그래서인지 남한에선 이런 외모가 예쁘다고 해도 기분이 좋진 않더라고요.(웃음)"



"씩고 병든 자본주의 아닌가 생각했어요"

이 커플은 요즘 정연 씨의 옷차림 때문에 가끔 승강이를 하곤 한다. 정연 씨의 치마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게 강호 씨의 불만.

"북한에서는 기껏 입어야 무릎 아래 10cm로 입지, 다리 다 보이고 속옷까지 들여다보이는 거 입지 않거든요."

정연 씨도 처음에는 남한식 옷차림에 적응하지 못했다고 했다. 북한에서 금시(금방)왔을 때는 '속옷이 다 비치는 짧은 치마'나 '가슴이 발랑발랑' 노출 심한 옷을 입은 여성을 보면서 이게 바로 북한에서 말하는 '씩고 병든 자본주의'인가 싶었지만, 이젠 그 또한 자유로운 생

활방식의 하나라고 생각이 바뀌었다.



‘썩고 병든 자본주의’는 탈북민들에게 자주 듣는 말 중 하나다. 남한을 비하하는 내용의 교육을 오랫동안 받다 보니 가끔 그 말이 튀어나올 때가 있다. 특히 개에게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채워 자가용에 싣고 가는 걸 보고 ‘사람보다 개가 낫다. 이게 말로만 듣던 썩고 병든 자본주의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북한에서도 이전 애완견을 키우는 집이 있다지만, 대부분 기둥에 묶어놓는 데다 ‘시라지(시래기)’와 남은 음식을 넣고 끓여서 밥을 주는 게 전부이기 때문. 남한에 애완 동물 병원이 있다는 것도 놀라웠는데, 북한에는 가축방역소 외에 동물병원은 본적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정연 씨는 심지어 ‘남한에서 걸어 다니는 것들은 다 돈을 내야 한다’는 말도 들었다고 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야 했을 때도 먼저 돈을 손에 쥐고 말을 걸었다. “집을 배정받고 처음 밖으로 나왔는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물어보면 돈을 내야 한다는 생각에, 얼마를 달라고 할지 몰라서 일단 만 원을 손에 쥐고 물어봤죠. 그런데 그분은 친절하게 길을 대주면서(알려주면서) 다행히 돈을 달라고 안 하시더라고요.”

“다시 북한에 갈 건 아니니까 적응해야죠”

조금은 과묵해 보이는 강호 씨와 영동 발랄한 정연 씨. 이 둘은 어떻게 연인 사이가 됐는지, 남한사람을 이성으로 사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탈북민끼리 사귀게 된 건지 물어봤다.

“한국 여자는 약간 드세다는 생각이 없진 않아요. 싫다는 건 아니고요. 북한말로 ‘까치는 까치끼리, 제비는 제비끼리 만나서 산다’는 속담이 있어요. 서로를 잘 이해해주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사는 게 좋다는 뜻이겠지요.”

정연 씨는 남녀 연애에도 남북 간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남한은 법이 세서 그런지, 아니면 남자가 유순해서 그런지 ‘너 나랑 사귀지 않으면 집에 안 보낸다’는 식으로 겁주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동생이 남한 남자랑 사귀다 헤어졌는데 연락하지 말랬다고 진짜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머저리 아니야?’라고 물었더니 동생은 제가 이상한 거래요.”

이 말을 들은 강호 씨는 북한 남자들의 경우 ‘열 번’이 아니라 ‘백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을 구호처럼 쓴다고 했다. 여자가 싫다고 해도 될 때까지 해보는 게 ‘남자답다’, ‘남자의 기질이 있다’는 인식이 있어서 강하게 나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듣고 나니 제비든 까치든, 남이든 북이든 중요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경지역 장교였던 강호 씨는 정연 씨가 북한을 탈출하다 잡혀 왔을 때, 그리고 또 탈출하다 다시 잡혀 왔을 때 여러 번 도와줬고 결국 남한까지 함께 와 준 생명의 은인. 정연 씨는 거멀게 그을린 그의 얼굴을 마주보고 웃으며 말했다.

“교화소(교도소)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위험한 고비도 많았지만 (강호 씨) 덕분에 몸 어디 한 군데 어긋나지 않고 무사했던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것만도 고맙죠. 사실 북한에서 조용히 살려면 호미지고 산에 가서 깎지질(곡괭이질)을 하거나 시장에서 국수를 팔면 된대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차근차근 해 나가야죠. 다시 북한에 갈 건 아니니까요.”



〈글. 기자회견〉



강호 씨가 태어난 곳은 양강도지만 함경남도 북청에서 어린 시절을 났다. 북청은 사과가 유명해서 집집마다 사과나무를 울타리로 삼고 길 양옆으로 사과밭이 즐비해 있기 때문에 하고 때마다 사과를 따서 집에 가곤 했다고 한다. 특히 사과 꽃이 일제히 꽃망울을 터뜨리는 봄엔 드넓은 사과밭이 환상적인 아름다움을 뽐낸다고.



북청사과 중에는 '1호 제품'으로 올라가는 사과들이 있는데, '1호 농장'으로 정해진 밭의 사과는 아무나 접근하거나 딸 수 없다. 하지만 일반 농장의 경우 사과 수확철마다 동원 온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국가에 올려 보내는 것만큼이나 몰래 내다파는 사과의 양도 많아, 이 시기는 돈을 제법 벌 수 있다고 했다. 사실 사과를 개인이 내다 파는 것은 불법이지만, 사과의 경우 품질이 좋아 자긍심 하나는 대단하다고 한다.

그런데 북청이라는 지명에는 '덤베'라는 말이 가끔 따라다닌다. '북청 사람들은 참을성이 덜해 잘 덤빈다'는 뜻에서 '덤베북청'이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하지만 이는 재미로 통용되는 말일 뿐, 모든 북청 사람들이 '싸움꾼'이란 뜻은 아니므로 오해 마시길.

※ 위 사례에서 소개된 북한의 문화는 북한이탈주민 개인의 경험에 의한 것으로 현재 북한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과 탈북 연도를 참조해주세요. <나의 살던 고향은>은 북한이탈주민에게 듣는 내고향 이야기입니다.



국론결집 위한 '국민공감-평화통일 토론회' 개최 전문 패널과 청중간 질의응답 활발, 참여 열기 높여

민주평통은 지난 3월 24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자문위원, 일반시민, 학생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공감-평화통일 대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인한 한반도 위기상황 속에서 국론을 결집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민주평통과 국립외교원, 세종연구소, 통일교육원, 통일연구원 등 5개 기관이 공동주최했으며, 외교부와 통일부가 후원했다.

유호열 수석부위원장 '북한의 변화 위해 국론결집' 주문

'국민공감-평화통일 대토론회'는 중앙대 조윤영 교수(민주평통 외교안보분과 간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유호열 민주평통 수석부위원장의 개회사, 두랏 바키셰프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의 기조연설에 이어, '안보환경의 변화와 북핵문제의 해법', '통일을 위한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각각 1, 2세션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전문가 패널들만의 토론이 아니라, 청중이 현장에서 작성한 질문을 받아 답변하는 형태로 진행돼 큰 호응을 받았다.

유호열 수석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토론회는 북한이 핵개발과 미사일발사 등 각종 도발을 자행함에 따라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비핵화를 통해 스스로 경제발전을 도모하며 그 토대 위에서 평화통일을 만들어 간다는 대통령의 정책기조를 뒷받침하는 자리"라며 "자문위원과 국민들의 일치된 대응으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통일로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도록 하자"고 국론결집을 주문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두랏 바키셰프 주한 카자흐스탄대사는 '북핵과 카자흐스탄 비핵화 경험'이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구소련 붕괴 후 핵과 미사일 잠재력을 갖게 된 카자흐스탄이 왜, 어떤 방식으로 핵을 포기하고 평화의 길로 나아갔는지를 설명했다. 바키셰프 대사는 "카자흐스탄 정부가 핵포기를 선언한 것은 국민들이 핵보다는 경제발전을 원했기 때문이고, 당시의 선택은 옳았다"며 북한의 핵 포기를 중용했다.



▲ 유호열 수석부위원장





1세션 ‘안보환경의 변화와 북핵문제의 해법’ 논의

‘북핵·미사일 도발 이후 안보환경의 변화와 북핵문제의 해법’을 주제로 한 1세션에서는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민주평통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의 사회로 구본학 한림국제대학원 부총장,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제성호 중앙대학교 교수,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에 중국, 러시아 등도 동참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으로 국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북제재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각국 대사관과 NGO들이 철저히 모니터링 해야 하며, 위반 케이스를 공개했던 앙골라의 경우처럼 국제사회가 제재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공개토록 하는 것도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또한 패널들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동참은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기회이므로 상황의 중대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같이 해야 하며, 인권차원에서의 압박도 병행하는 등 북한의 변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1세션 토론모습



▲ 2세션 토론모습

2세션 ‘통일을 위한 우리의 대응’ 모색

이어 2세션에서는 ‘통일을 위한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김영수 서강대 교수(민주평통 통일정책분과위원장)가 사회를 맡았으며,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장, 진창수 세종연구소장, 이정훈 대한민국 인권대사, 최진욱 통일연구원장 등이 패널로 나섰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성공단 중단 조치의 경우 우리 정부가 어려운 결정을 했고, 결과적으로 유엔 결의안을 이끌어 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며, 남남갈등을 해결하고 한국이 주인이 돼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국민적 컨센서스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북제재의 경우 심리적 압박효과가 있고 국제정치에서도 한국의 정당성을 인정해주는 효과가 있는 만큼, 일관성 있는 제재를 위해 남남갈등을 줄일 수 있는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오늘의 토론회가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공감토론 답게 플로어 서면질의응답 ‘활발’

한편, 이 날 토론회는 ‘국민공감’과 ‘국론결집’을 위해 개최된 만큼 전문가 패널들의 기초발언 후 청중들의 서면질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

다. 한반도 위기상황을 대비하듯 플로어에서는 '만약 북한이 5차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 우리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는 안보 관련 질문과 '북한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낼 현실적인 방안' 등에 대한 질문이 다수를 이뤘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필요한 남한의 국론통합, 범국민적인 지혜와 결집을 이루는 방법, 통일공감대를 확산하는 방법들을 모색해 달라는 주문도 많았다. 아울러 '이런 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하며 생산적'이라는 평가들도 이어지는 등 행사 내내 높은 참여열기를 보여줬다. 이 같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민주평통은 금년 하반기에도 2차 '국민공감 평화통일 대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늘 국민공감대토론회 어땠나요?



조윤영 교수(중앙대학교, 사회) : 이번 행사는 '국민공감' 대토론회입니다. 북핵 도발 이후 높아지는 위기 의식, 그리고 우리의 대응 방법을 전문가들로부터 들어보는 대토론회지만, 무엇보다 '국민공감' 대토론회이기 때문에 토크쇼방식의 소통이 이뤄졌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참석했을 뿐 아니라 진지하게 들으면서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의미가 더 깊은 것 같습니다.

서영우, 김진영, 이슬(서강대학교) : 평소 통일 및 대북정책에 관심이 많아 참가하게 됐어요. 우리가 통일에 대해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토론회에 와 보니 의외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시단 걸 알게 돼서 안심이 돼요(영우). 2세션 사회를 맡으신 김영수 교수님 수업을 듣고 있어요. 수업에서도 많은 걸 배웠지만 오늘 토론회에서는 여러 시각을 가진 분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서 유익했어요(진영). 최근 장거리미사일발사 시험 등 북한 핵문제가 언론에 자주 등장하면서 솔직히 안보에 대한 걱정도 있었는데, 구체적인 정보나 해결방안을 알게 돼서 좋았어요(슬).



▲이슬, 김진영
◀서영우

NUAC NEWS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통일운동 중심체로서
통일정책에 관해 대통령에게 자문건의 하는 것을 비롯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통일 의지와 역량을 결집시키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수종 · 엄홍길 등 평화통일 홍보대사 및 실천홍보대사 위촉



민주평통은 지난 3월 14, 15일 '평화통일홍보대사'와 '평화통일 실천홍보대사'를 각각 위촉해,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의지를 모으고 국민단합 및 국론결집을 위한 민주평통의 활동에 동참·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14일 민주평통 사무처에서 개최된 '평화통일홍보대사' 위촉식에는 탤런트 최수종 씨와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16좌를 완등한 산악인 엄홍길, 차세대 디바 예일리, 성악가 김동규·강민성 씨 등 5명의 홍보대사가 참석했으며, 트로트 가수 배일호 씨는 이날 개인 사정으로 참석치 못했지만 2월 개최된 '전국 부의장 협의회장 합동회의'에서 홍보대사 위촉장을 수여받은 바 있다. 이어 15일 열린 '전국 지회장·간사 합동회의'에서는 '평화통일 실천홍보대사'로 바리톤 노희섭, 테너 김현수, 아나운서 김희영, 탈복가수 김정원, 트로트가수 김양, 아이돌가수 B.I.G, 역사어린이합창단 등을 위촉했다. 홍보대사들은 위촉식에서 통일준비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며 홍보대사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부산지역회의 '2016 평화통일 콘서트' 개최



민주평통 부산지역회의(부의장 이영숙)는 3월 16일 '2016 평화통일 콘서트'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했다. 2012년부터 매년 진행되는 평화통일 콘서트는 부산시민과 관내 탈북민들이 함께 소통·화합하고 이를 통해 통일의 가교 역할을 하고자 하는 의미로 열린 행사이다. 이날 콘서트에는 김범수 씨의 지휘로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위풍당당 행진곡 1번 등의 연주를 선보였으며 뮤지컬배우 남경주, 소프라노 강민성, 탈북피아니스트 김철웅, 성악양상블 벨트라움의 다양한 협연이 진행됐다.

서울 영등포구협의회 여의도 봄꽃축제장서 통일염원 행사 개최



민주평통 서울 영등포구협의회(회장 김원국)는 제12회 '2016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 행사기간인 4월 4~10일, 평화통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통일, 봄꽃에 물들다!'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5일 오전 11시 여의서로 서강대교 남단에서 열린 '통일의 문' 리본 커팅식과 '통일기원 꽃탑 조형물 제막식'으로 문을 열었으며, '평화통일염원 리본달기'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마련됐다. 커팅식과 제막식에는 배정호 민주평통 사무처장과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박정자 영등포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많은 시민 관람객들이 참석했다. 영등포구협의회는 '평화통일염원 리본달기' 코너에서 시민들이 리본에 적은 평화통일 염원 메시지를 게시대에 전시했으며, 행사종료 후에는 '통일희망나무'로 제작, 전시키로 했다.

민주평통 '전국 지회장·간사 합동회의' 열어



민주평통은 지난 3월 15일 '전국 지회장·간사 합동회의'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지역의 지회장과 간사 240여 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 간부 자문위원들은 '북한의 도발과 핵무장을 저지하기 위해 민주평통이 국민단합과 국론결집에 적극 앞장서 나갈 것'을 결의했다. 배정호 사무처장은 개회인사를 통해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민주평통은 앞으로 '국민단합과 국론결집'을 최우선과제로 삼아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이를 통해 북한의 핵무장을 반드시 저지하는 한편, '평화통일과 위대한 선진강국 건설' 등을 향해 더욱 선제적으로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호열 수석부의장은 기초강연에서, "정부가 북한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 원칙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이를 국민들이 한목소리로 지지할 때 주변국을 포함해 국제사회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한국의 북핵문제 해결 의지에 공감하고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美 존스홉킨스대 및 日 도카이대 방문단과 통일 좌담회 열어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의 임은정 교수 및 학생들이 3월 17일 민주평통 사무처를 방문했다. 임은정 교수와 학생들은 '배정호 사무처장과의 대화'에서 북한인권 실태와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으며, 한반도 통일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좌담회에는 한동호 박사(통일연구원)와 최경희 박사(한양대), 탈북학생 등이 함께 참여해 존스홉킨스대 학생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이어 3월 29일에는 일본 도카이대 국제문화학부 이준호 교수(일본 동부협의회 자문위원)와 학생들이 사무처를 방문했다. 이준호 교수 등 방문단은 배정호 사무처장과 함께 최근 한일관계를 비롯해, 한국의 통일준비 노력과 통일과정에서의 일본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재외공관장 간담회 개최, 통일 위한 노력에 협력 당부



유호열 수석부의장은 3월 16일 재외공관장 회의를 위해 고국을 방문한 재외공관장들을 초청, 롯데호텔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아침 일찍 조찬을 겸한 회의로 진행된 간담회에는 재외공관장 180여 명이 참석했으며, 조태열 외교부 2차관 등 외교부 관계관도 배석했다. 유 수석 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는 통일을 위한 큰 여정 중의 하나이며, 통일을 위해 민주평통과 재외공관장들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더욱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배정호 사무처장은 "민주평통은 세계 각국에 북핵문제 해결과 대한민국 주도의 평화통일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고 동포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재외공관장들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민주평통 2016년 1~3차 직능별 정책회의 열어



민주평통은 3월 22~23일 2016년 제1차 직능별 정책회의를 대전 유성호텔에서 개최했다. 정치·안보, 행정·법무 직능 자문위원 15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회의에서는 '통일 및 대북정책의 국민적 공감대 제고', '통일준비를 위한 남남갈등 해소' 등 해당 직능분야의 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유호열 수석부의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민주평통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건양대 김태우 초빙 교수는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한편 3월 24~25일과 3월 31일~4월 2일에도 2차, 3차 직능별 정책회의가 각각 개최됐으며, 이번 직능별정책회의에서 수렴된 내용은 향후 정책건의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통일시대시민교실, 강연회 등



▼ 충남 홍성군협의회





▲ 대구 수성구협의회



▲ 전북지역회의

대구 수성구협의회(회장 신철범)는 2월 24일 구청에서 관내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여성자문위원, 여성북한이탈주민 등과 함께 여성의 시각에서 바라본 '평화통일준비 좌담회'를 열었다. 충남 홍성군협의회(회장 이무형)는 3월 8일 노인종합복지관 노인대학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진행했으며, 전북지역회의(부의장 송현만)와 전주시협의회(회장 나춘균)는 9일 전북대학교에서 '2016년 상반기 전북평화통일포럼'을 개최했다.



▲ 경기 안산시협의회



▲ 경북 청도군협의회

경기 안산시협의회(회장 유오복)는 10일 시청에서 통일지도자 양성을 위한 '통일대학 제11기 민주평화통일지도과정' 개강식을 열었으며, 경북 청도군협의회(회장 박만수)는 21일 인근부대에서 탈북강사와 북한공연단을 초청, '국군장병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 행사 및 북한 사진전을 개최했다.

통일미래세대 육성



▲ 경남 진주시협의회



▲ 경기 파주시협의회



▲ 경기 과천시협의회

경남 진주시협의회(회장 원호영)는 2월 19~20일 진주지역 5개 대학교 대학생 연합 통일동아리 임원 워크숍을 갖고 올해 활동과 사업에 대해 논의했으며, 경기 파주시협의회(회장 김경선)는 25~26일 파주 영어마을에서 경기일보, 경기영어마을, 아주대학교 등과 함께 나라사랑 토론회를 1박 2일간 개최했다. 경기 과천시협의회(회장 이순형)는 3월 4일과 16일 각각 과천중앙고와 과천여고에서 민주평통과 통일에 대해 소개하는 '청소년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인천 강화군협의회





▲ 대구 달서구협의회 충북 충주시협의회 ▶

인천 강화군협의회(회장 곽노중)는 2월 3일 관내 북한이탈주민들을 초청해 소통의 시간을 갖고 격려품 전달했으며, 대구 달서구협의회(회장 김옥열)는 18일 '멘토-멘티 간담회'를 개최해 작년 지역회의의 결연식에 함께하지 못한 멘토-멘티간 결연서를 교환했다. 충북 충주시협의회(회장 석종호)는 20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관내 북한이탈주민 단체와 함께 전통놀이를 즐겼으며 탈북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 인천 연수구협의회

▼ 서울 양천구협의회



성화동일자문회의의 부산사하구협의회와 리본비이크사가 함께하는 REC@N
탈북민 자녀돕기 일금 일천만원 후원 협약식
 19:00 • 장소: 사하구청 신관 2층 중회의실 • 주최: 성화동일자문회의 부산사하구협의회 • 후원: 리본비이크 대표이사 김

◀ 경북 상주시협의회 ▲ 부산 사하구협의회

인천 연수구협의회(회장 장한조)는 지난해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징검다리 멘토링 결연식'에서 결연을 맺은 멘토-멘티간 상견례를 22일 진행했으며, 서울 양천구협의회(회장 임경하)는 24일 2016년도 1분기 정기회의에서 분기별로 지급되는 제8차 통일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26일에는 경북 상주시협의회(회장 권세환)가 여성분과위원회(위원장 이경옥) 주관으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행복 어울마당'을 열었고 부산 사하구협의회(회장 배백식)도 이날 '북한이탈주민(소외계층) 자녀돕기 일천만원 후원 협약식'을 거행했다.



▲ 경기 부천시협의회

▲ 서울 강남구협의회

경기 부천시협의회(회장 김기명)는 3월 3일 시청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탈북학생 생활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서울 강남구협의회(회장 김정현)는 9일 '제17기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단 출범식 및 의료봉사'를 수서경찰서 대강당에서 개최하고, 한방 및 치과 무료 의료 봉사를 진행했으며, 건강검진 후 한약과 선물을 전달했다.

▼ 충북 진천군협의회





▲ 경기 의정부시협의회



▲ 서울 은평구협의회



경기 의정부시협의회(회장 김점순)는 10일 남북하나재단에서 운영중인 북한이탈주민 주택미배정자 경기북부권역 싯터인 한꿈터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했으며, 서울 은평구협의회(회장 전우대)와 호주협의회(회장 이숙진)는 14일 북한이탈주민 차세대 지도자 양성을 위한 인재발굴 및 북한이탈주민 영어 구사력 증진, 경계력 향상을 목표로 호주 유학 및 취업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이어 충북 진천군협의회(회장 박승서)는 17일 군청에서 북한이탈주민과 여성사무원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함지박 만들기 문화체험활동'을 실시했다.

통일문화 확산

▼ 서울 강동구협의회



▲ 충남 예산군협의회



▲ 부산 서구협의회

서울 강동구협의회(회장 이종춘)는 2월 20일 광나루 한강시민공원 모형비행장에서 탈북민 및 시민들과 함께 '제5회 통일염원 강동구민 연날리기 대회'를 개최했으며, 충남 예산군협의회(회장 정달순)는 21일 지역의 달집축제와 연계한 '통일기원 소원등 날리기' 행사를 무한천 둔치공원에서 열었다. 22일에는 부산 서구협의회(회장 류채형)가 정월대보름 송도달집축제의 부대행사인 평화통일 기원 '정월대보름맞이 달집태우기 행사'에 참여했고, 강원 속초시협의회(회장 장세호)도 이날 속초 엑스포장 대보름 행사장에서 '평화통일염원 연날리기'를 실시했으며, 대구 중구협의회(회장 이진모)는 신천둔치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초청해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를 개최했다.



▲ 강원 속초시협의회



▼ 대구 중구협의회



▲ 경기 광주시협의회



▲ 대전 유성구협의회



▲ 충북 청주시협의회

경기 광주시협의회(회장 박종선)는 19일 관내 기업인단체 회원들과 함께 판문점 및 제3땅굴 등으로 통일안보 현장견학을 다녀왔으며, 대전 유성구협의회(회장 김승수)도 24일 용산 전쟁기념관과 청와대 일대에서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통일안보 현장견학을 실시했다. 충북 청주시협의회(회장 안덕호)는 25일 '2016 청주시 통일지도자 아카데미(4주과정) 개강식'을 열었으며 3월 10일에는 강원도 통일안보공원일대로 '통일지도자 안보현장견학'을 다녀왔다.





▲ 경남지역회의



▲ 경남 사천시협의회

경남지역회의(부의장 최충경)는 여성위원회(여성위원장 김한순) 주관으로 3월 17일 군청에서 '제17기 민주평통 경남지역 여성 통일수다방'을 개최했으며, 경남 사천시협의회(회장 전재석)는 20일 사천시 봉명산 일대에서 통일 염원 리본달기 등 '통일준비 한마음 담기 합동산행 및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지역 봉사활동



◀ 대전 서구협의회



▲ 충남 공주시협의회

▲ 경기 시흥시협의회

대전 서구협의회(회장 김보영)는 3.1절을 맞아 3월 1일 국립대전현충원 현충탑에서 통일이지를 다짐하는 의미의 분향 및 묵념을 진행했고, 충남 공주시협의회(회장 김기필)는 이날 독립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자 3.1절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모범아파트를 선정했으며, 경기 시흥시협의회(회장 성낙헌)는 북한이탈주민들과 함께 시흥시 제97주년 3.1절 기념행사 및 제막식에 함께했다.



▲ 강원 강릉시협의회



▼ 경북 칠곡군협의회



▲ 대구 남구협의회

강원 강릉시협의회(회장 김화복)는 8일 관내에 위치한 공군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의 문화활동을 위한 DVD를 위문품으로 전달했고, 경북 칠곡군협의회(회장 이수현)는 11일 한 노인복지시설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새봄맞이 무료급식 배식봉사를 실시했으며, 대구 남구협의회(회장 노판석)는 15일 남부경찰서, 유관협력기관 등과 함께 '112허위신고 근절' 홍보 캠페인에 참여했다.



▼ 경기 의왕시협의회





▲ 경기 이천시협의회



▲ 강원 홍천군협의회

경기 이천시협의회(회장 오문식)는 17일 시청에서 체감도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복한 동행 사업 1인 1나눔 계좌 갖기' 캠페인에 동참했고, 경기 의왕시협의회(회장 이필경)는 19일 왕곡마을 입구에서 백운사까지 이동하면서 통일염원 걷기대회 및 환경보전 대청결운동을 실시했으며, 강원 홍천군협의회(회장 양태호)는 3월 22일 (구)보령수퍼-석화자동차공업사 구간에서 '새봄맞이 국토 대청결운동'을 펼쳤다.

해외 지역 통일활동



미국 오렌지샌디에고협의회(회장 권석대)는 3월 1일 삼일절 기념 평화통일염원기도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평화통일과 탈북민의 안전 및 북한 인권개선, 한인 차세대의 정체성 회복 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렌지샌디에고협의회와 오렌지샌디에고 기독교교회협의회는 6년째 삼일절 기념 기도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협의회(회장 임태량)는 3월 1일 일제강점기 한인 이민 선조들의 독립운동과 1919년 3.1 운동 정신을 기리는 '제97주년 3.1절 기념행사'를 LA 곳곳에서 펼쳤다. LA 한인회와 총영사관, 미주 3.1 여성동지회, 미주광복회, 대한민국민회, 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 흥사단 등 20여 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기념식은 한인 독립유공자들이 영면해 있는 로즈데일 공원묘지 참배에 이어 대한인 국민회관에서 열린 연합 기념식, 그리고 리버사이드 소재 도산 안창호 동상 방문 등 독립사적지 탐방 순서로 진행됐다.



미국 샌프란시스코협의회(회장 경승덕)는 2월 27일 팔로알토 미셀팩 커뮤니티센터에서 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한동만 총영사를 초청, '동북아 정세와 한국의 통일정책'을 주제로 한 강연회를 개최했다. 한 총영사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이 동북아시아에 미치는 영향과 통일 한국의 세계 경쟁력 등에 대해 설명했으며, 강연회 후에는 참석자 전원이 북한의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한편 이날 샌프란시스코협의회는 곧 임기를 마칠 한동만 총영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으며, 최성우, 문순찬 자문위원 등 우수자문위원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표창장을 전달했다.



▲ 시카고협의회



▲ 밴쿠버협의회

미국 시카고협의회(회장 이문규)는 3월 1일 시카고제일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열린 97주년 3·1절 기념식에 참가해 만세 삼창을 부르며 3·1절 정신을 기렸다. 시카고한인회(회장 진안순)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300여 명의 한인들이 참석했으며,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독립선언문 낭독, 삼일절 노래 합창, 만세 삼창 등이 진행됐다.

캐나다 밴쿠버협의회(회장 서병길)도 이날 제97회 3.1절 기념식에 참가해 한국독립을 위해 희생한 선열들의 넋을 기렸다. 이기천 총영사와 연아마틴 상원의원, 각 한인단체장, 동포, 캐나다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이기천 총영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대독했고 '만세 삼창'이 있었으며, 서병길 밴쿠버협의회 회장의 제안에 따라 참석자 전원이 한마음으로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했다.



중국 칭다오협의회(회장 이영남)는 3월 19일 '17기 청소년 통일 동아리' 발대식을 칭다오청운학교 강당에서 열었다. 관내 고등학생 35명으로 구성된 동아리는 앞으로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여 칭다오협의회(회장 이영남)의 통일활동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그룹별로 통일관련 토론회를 열어 통일의식을 고취해나가는 한편, 소속학교의 통일준비 리더로 활동할 계획이며, 칭다오협의회는 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봄을 위한 여행안내서

경남 진해

봄은 벌써 전국을 휘어잡았다. 팝콘 같은 꽃잎이 바람에 실려 날아다니며 '사랑한다'고 속삭이고, 푸른빛으로 돌아난 새싹들이 '힘내'라며 어깨를 두드려주는 것 같다. 이맘때 서울에서 출발하는 고속도로 여정은 참 즐겁다. 고속도로를 에워싸고 있는 자연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데다, 남쪽으로 향하면 향할수록 자연의 기운은 풍성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기 때문이다.

진해군향제는 벚꽃축제 이전에 '이순신 장군 추모제'

경남 진해시, 아니 마산과 창원, 진해시가 통합된 창원시 진해구에 들어서면 풍경은 절경을 찍는다. 온 도시가 벚꽃으로 물들어 있고 바람이라도 불 라치면 꽃잎이 눈처럼 내리기 시작한다. 여기에 '진해군향제' 즐기 기 위해 몰려든 상춘객까지 더하면 '벚산벚해(櫻山櫻海)', '인산인해(人山人海)'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올해 제54회를 맞이하는 진해군향제는 '꽃으로 전하는 희망! 군항을 울리다'를 주제로 4월 1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된다. 1952년 4월 13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한국 최초로 세우며 추모제를 올린 것이 그 시작이다. 이후 해를 거듭하면서 행사의 규모가 커졌고 진해의 벚꽃이 '한뫼'를 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됐다. 그 결과 사람들의 기억 속 축제의 이미지는 '벚꽃축제'다. 어찌 보면 사람들을 진해로 모이게 한 것도 벚꽃일 테니 말이다. 하지만 진향제가 왜(倭)에 맞서 싸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얼을 추모하는 행사라는 것만은 꼭 기억해야 할 테다.

아름다움을 뽐내는 진해의 왕벚나무에는 안타까운 사연도 있다. 해방 이후 많은 시민들이 '왕벚나무는 일본의 국화'라고 오해해 오랜 세월 자리를 지켜온 나무들을 무차별적으로 베어낸 것. 하지만 1962년 식물학자 박만규와 부종휴 씨가 왕벚나무의 원산지 가 일본이 아닌 제주도라는 사실을 밝혀내면서 벚나무 살리기 운동이 됐고, 다시 사람들은 왕벚나무를 가꾸기 시작했다. 일본의 이미지 마케팅을 통해 벚꽃은 일본산으로 알려졌지만, 왕벚나무의 원산지는 일본이 아니라 우리나라이다.



밤낮을 아름답게 수놓는 여좌천, 벚꽃터널 사이 경화역



‘여좌천’은 드라마와 영화 촬영 장소로 유명한 벚꽃 명소다. 1.5km 길이의 개천을 따라 벚나무가 좌우로 있어, 걷다 보면 머리 위로 분홍 벚꽃잎이 흩날린다. 개천 아래로도 걸을 수 있는데 노란 유채꽃이 벚꽃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낸다. 여좌천 코스 중에서도 양쪽 보행로를 잇는 ‘로망스 다리’는 사진 명소 중 하나다. 2002년 방영된 드라마 ‘로망스’에서 두 주연배우(관우와 채원)가 군항제에 왔다가 처음 만난 곳이기 때문이다. 이후 연인들의 커플사진 단골장소로 발돋움했다.

밤이 되면 여좌천은 은은한 조명이 불을 밝힌다. 3월 31일 점등식을 시작으로 4월 10일까지 별빛축제가 열리는 밤의 여좌천은 낮보다 더 화사한 분홍 빛깔을 뽐내며 운치를 더한다. 참고로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보존하면서 걸을 수 있는 데크를 만들다 보니 사람 키보다 낮게 가지를 뺐은 나무도 있다. 머리를 부딪히고 싶지 않다면 ‘머리조심’이라 적힌 나무들을 만날 때마다 고개를 잠시 숙여주자.

진해의 벚꽃이 한눈에, 제황산공원

제황산공원은 진해 제황산동에 있는 시민공원이다. 공원으로 향하는 방법은 일 년 계단이라 불리는 365계단을 오르거나 모노레일을 이용하면 된다. 운동 삼아 365계단을 오르면 벚꽃과 개나리가 조화롭게 피어나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니 참고하자.

정상에 서면 해군 군함을 상징하는 높이 28m의 9층 진해탑이 우뚝 솟아 있다. 1, 2층에는 진해에서 발굴된 각종 유물과 민속모형이 전시되고 있다. 탑 꼭대기는 전망대다. 전망대에 오르면 진해를 가득 메운 36만 그루의 벚꽃 진풍경을 이룬다.



특별한 경험, 군부대 개방과 군악의장페스티벌

군항제 기간 동안은 특별히 진해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해군진해기지사령부, 미해군진해함대지원부대가 개방된다. 해군사관학교 박물관 및 거북선 관람, 함장 공개, 사진전, 해군복 입기, 요트크루즈 승선 등 다양한 체험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해군기지의 면모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100년이 넘는 왕벚나무의 화려한 벚꽃 자태를 만끽할 수 있으니, 1년에 한 번뿐인 기회 꼭 놓치지 말자.

이외에도 군항도시의 특성을 살린 군악의장페스티벌이 축제기간 중 금요일 저녁과 주말에 개최된다. 군악대의 힘찬 마칭공연과 의장대의 제복, 절도 있는 군대예술 공연은 진해군항제 벚꽃축제에서만 볼 수 있는 이색적인 공연이 될 것이다.



진해 골목에서 만나는 근대문화유적

한편 진해는 시가지 중심에는 중원, 복원, 남원로터리 등 3개의 로터리가 있다. 또한 로터리를 기점으로 여덟 개의 도로가 펼쳐져 있는데 로터리의 각 골목마다 근대문화 유적인 진해우체국, 선학공탕집, 흑백다방, 영해루, 뽕죽집 등 100년 전의 건물을 만날 수 있다. 이외에도 군항마을역사관을 방문하면 1902년부터 시작된 군항 개발 및 옛 도시 풍경 사진과 함께 스토리텔링을 직접 들을 수 있으니 반드시 찾아가 보도록 하자.

〈글.사진 / 신영민〉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반찬을 칼파스!

글. 권혜리 / 그림.이택중







* 칼파스(북한말) = 소시지(남한말)



'쫄깃담백'한 황해도 특산물, 까나리 볶음



남한에서는 까나리 어획량의 대부분을 액젓으로 만들지만, 북한에서는 볶음, 튀김, 구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해 먹는다. 본디 까나리는 남한보다는 북한 황해도에서 즐겨 먹었으며, 남한 최고의 까나리 특산지인 백령도 역시 분단 전에는 황해도 소속이었으나 정전 후 인천시 옹진군으로 편입됐다.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술안주로 즐겼다고 전해질 만큼 맛있는 까나리로 담백한 볶음요리를 만들어보자.

요리재료

요리재료 : 마른 까나리 200g, 파리고추 100g, 마늘 3개, 간장 2큰 술, 설탕 1큰 술, 식용유 1큰 술, 통깨 약간, 실고추 약간



요리방법



1 마른 까나리는 머리를 떼고, 파리고추는 꼭지를 떼 준비한다.



2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파리고추를 넣어 볶아준다.



3

4



3 파리고추가 어느 정도 익으면 까나리를 넣고 볶는다.



4 이후 간장, 설탕, 얇게 썬 마늘을 넣어 고소한 향이 올라올 때까지 볶으면 완성.

서해의 까나리, 동해의 양미리

까나리는 서해 연안의 모랫바닥에서 서식하는 어류이며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해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뇌 활동을 촉진시킨다. 봄바람이 부는 3월부터 7월까지 그물을 쳐 잡는다. 반면 동해안에 서식하는 까나리인 양미리는 겨울철 산란기에 성어를 잡아 굽거나 국에 넣어 먹는다. 까나리와 양미리는 같은 종이지만 양미리의 크기가 두 배가량 크고 먹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 동해산 까나리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게 됐다. 1980년 북한에서 발간된 조선동해어류지에는 동해안 까나리의 방언으로 양미리, 양매리, 대양어, 양어 등이 기록돼 있다.

〈글.사진 / 요리연구가 박민지〉

두근두근 새 봄, 북쪽 친구 마음 얻기!



담혀 있는 세상,
북쪽 친구들은 아직도 남한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해요.
가끔 탈북민들을 통해 세상 밖 소식을 전해 듣기도 한대요.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대해, 남한 사람들에 대해
호감을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 탈북민들의 정착을 돕는다,
통일이 되면 좋은 점을 소개한다 등

- 응모기간 : 2016. 4. 7. ~ 4. 25
- 응모방법 : 하단에 비밀댓글로 남기거나 카카오톡(ID : 행복한통일)에 남겨주세요~
- 당선자수 : 3명
- 시상내역 : 문화상품권(2만 원권)

<주의사항>

- 경품수령을 위해 정확한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확한 회원정보로 인한 상품 미수령은 당사 책임지지 않습니다.
- 문의 : 02-2269-5029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웹진 이벤트 담당자

댓글 이벤트도 있어요!

각 기사 하단에 아래 그림처럼 댓글을 남기는 곳이 있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중 매월 15분을 선정해 4천원 상당의 커피교환권을 드립니다.

댓글과 만족도 기사에 응원 댓글을 남겨주세요!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입력



복불복!

행운의 통일 사다리타기



재미로 응모하는 행운의 통일 사다리타기!
1~5번 중 번호를 골라서 응모해주세요.
답을 맞으신 분들 가운데 26분을 선정해 상품을 드립니다.

- 응모기간 : 2016. 4. 7 ~ 4. 25
- 응모방법 : 하단에 비밀댓글로 남기거나 카카오톡 (ID:행복한통일)에 남겨주세요~
- 이벤트경품 : 햄버거세트 3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3명, 편의점음료교환권 20명
- 당첨자발표 : 웹진 다음호

번호를 맞추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합니다.



<주의사항>

- 경품수령을 위해 정확한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확한 회원정보로 인한 상품 미수령은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문의 : 02-2269-5029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웹진 이벤트 담당자

꽝



햄버거세트

꽝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편의점
음료교환권



e-행복한통일 이벤트 당첨자 발표

민주평통 웹진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통일새싹찾기’ 이벤트

번호	이메일 주소	닉네임
1	**lwoo@naver.com	이일우
2	**eoleoo@hotmail.co.kr	다시또한번
3	**ppyhj25@naver.com	변효정
4	**ckyou21@naver.com	장유정
5	**go99@nate.com	통일새싹1호
6	**stoption2@hanmail.net	토레스
7	**hy0326@naver.com	mlhy0326
8	**ranijoa@yahoo.com	달기주스
9	**sey0728@daum.net	김현아
10	**zz0108@naver.com	다솜규

‘통일나무심기’ 이벤트

번호	이메일 주소	닉네임
1	**ony96@hanmail.net	아방이
2	**teto1030@hanmail.net	포테토
3	**kobaco@hanmail.net	서현

‘웹진 만족도 조사(email)’ 이벤트

번호	휴대폰 번호	번호	휴대폰 번호
1	010-2073-09**	9	010-8877-67**
2	010-2224-08**	10	010-3450-22**
3	010-2418-73**	11	010-4769-50**
4	010-2881-23**	12	010-6403-23**

5	010-4850-44**	13	010-7104-29**
6	010-5396-18**	14	010-7246-50**
7	010-5493-94**	15	010-9318-49**
8	010-8563-62**		

당첨되신 분들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벤트는 계속되니 앞으로도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